

2023



1월



미인대회 저지 운동

2001년 진해군항제 '벚꽃여왕 선발대회' 항의 피켓팅을 통해 경남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성적대상화에 반대했다. 그러나 2002년 미스경남선발대회 저지시위, 2003년 미스경남 선발대회 반대 기자회견, 2004년 미스경남선발대회 반대 기자회견 '여성발전의 커다란 걸림돌, 미인대회를 중단하라!', 2006년 국화여왕 선발대회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으로 각종 미인대회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2019년 밀양 '아랑규수선발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랑설화는 성폭력 살인사건에 관한 정조 중심의 설화이다. '아랑규수선발대회'는 미인선발대회로서 2018년 #미투운동으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지방자치 행사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남여성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될 일이다.

1

January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정	2	3	4	5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정(1994)	6 12.15	7
8 제1차 정대협 수요시위(1992)	9	10	11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귀옥 탄신일(1901)	12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일(1932)	13	14
15	16 아내강간죄 인정 첫 판결(2009)	17 시인 고정희 탄신일(1948)	18	19	20	21
22 설날 1.1	23	24 대체휴일	25	26	27	28
29 군산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추모일(2002), 여성부 출범(2001)	30	31				

2월



경남여성단체연합 창립

1992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가 창립하면서 해마다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를 연대로 진행하였다. 이후 여성단체가 각 지역에서 창립하면서 사안에 따라 공동 대응, 공동 행사를 진행해오다가 2001년 연대모임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준비위가 결성되었다. 2001년 9월 경남여성단체연합 창립 준비를 위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1월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8차 회의를 통해 창립총회 준비를 하였고, 2002년 2월 5일 (화) 창원알뜰생활관에서 창립대회를 하였다.

2

February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경남여성단체연합창립 (2002)	3	4 입춘
5 정월대보름 1.15	6 여성할레무관용의 날 (2012)	7	8 남녀차별금지법제정 (1999)	9	10	11
12	13 최초의 '아내구타' 정당방위 운동 시작 (1991)	14	15	16	17	18 김해여성회 창립 (2000)
19	20 2.1 사회정의의 날(2007)	21	22	23	24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창립(2007)	25 김해여성의전화 창립(2000)
26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창립(1992)	27	28				

3월



3.8 세계여성의 날, 경남여성대회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섬유노동자 여성들을 기리며,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을 요구한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유엔에서 3.8 시위를 기념하여 매년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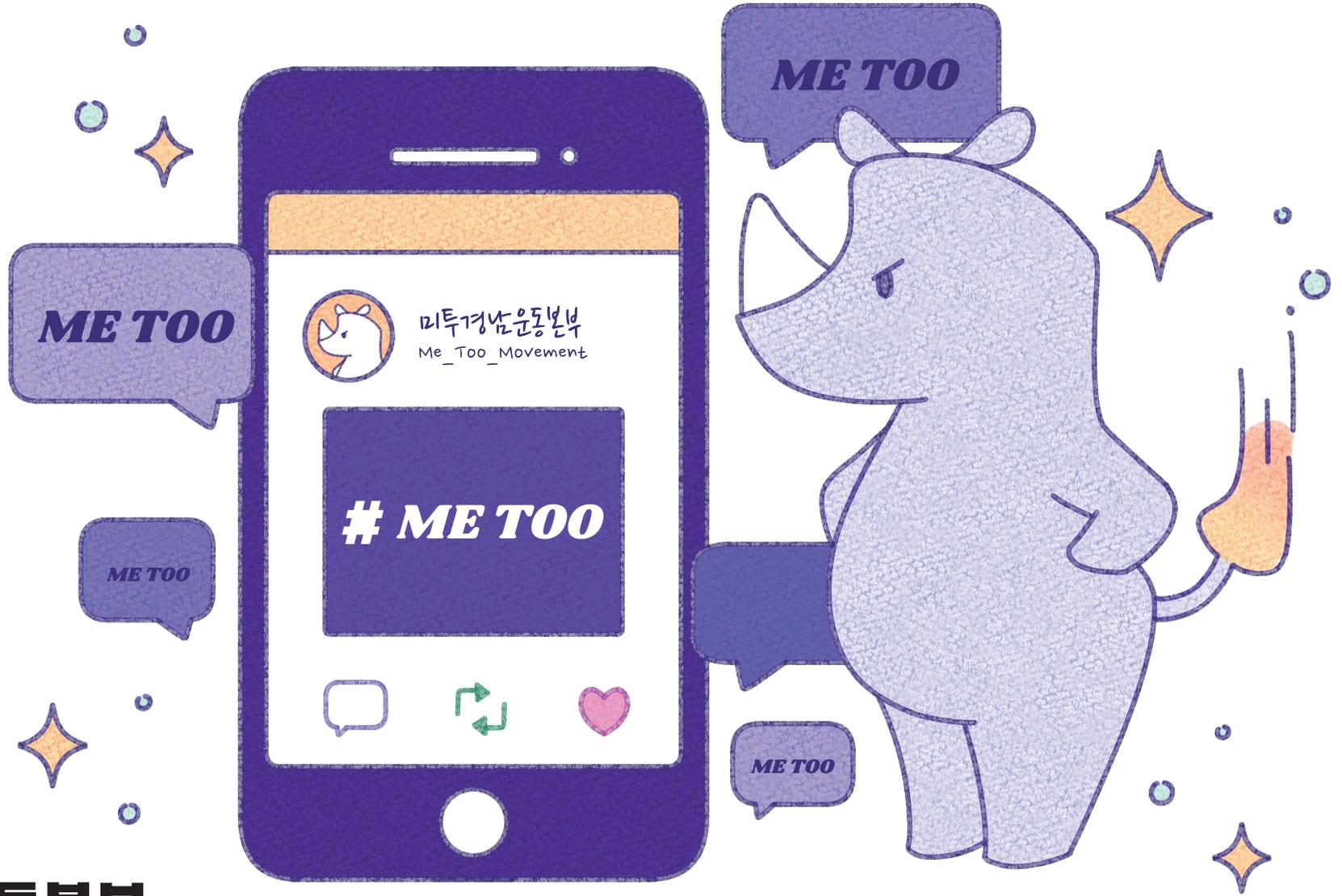
경남에서도 1989년 경남여성회, 마창노동조합 총연합 여성국, 카톨릭여성회관이 공동으로 제1회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마창여성노동자대회를 하였다. 이후 연대활동으로 3.8 세계여성의날 행사를 진행해오다 2002년 경남여성단체연합 창립 이후 매년 회원단체들과 연대로 경남여성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3

March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삼일절	2 호주제 폐지 법안 통과 (2005)	3	4
5	6 2.15	7	8 세계여성의날(1908)	9	10	11
12	13 진해여성의전화 창립(2001)	14	15 3.15 의거기념일 (1960)	16	17	18
19 문학가 허난설헌 사망일 (1589)	20	21 인종차별철폐의 날 (1966)	22 윤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4)	23	24 모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에 대해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 (2010)	25 억류되고 행방불명된 활동가를 위한 국제 연대의 날
26	27	28	29	30	31	

4월



#미투경남운동본부

2018년 당시 통영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지현 검사의 #미투 선언이 도화선이 되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요구하는 #미투운동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경남에서도 김해지역 연극극단내 성폭력 사건, 학교내 성차별 및 성불평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미투 선언이 계속되면서 '미투경남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미투 선언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연대대응하는 기자회견, 대책마련 간담회, 피켓시위, 피해자 법정지원 등 활동을 이어나갔다.

4

April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3 제주항쟁(1948) 경남여성장애인연대창립 (2002)	4	5 윤 2.15	6	7	8
9	10	11 낙태죄 헌법불합치선고 (2019)	12	13	14	15
16 세월호 참사 기억의 날(2014)	17 경남여성회 창립 (1986)	18	19 4.19혁명(1960), 김영희씨 한국통신정년 무효확인 소송승소 (1989)	20 3.1 장애인의 날 창원여성의전화창립 (1996)	21	22 은행여행원 결혼퇴직각서제 폐지(1976)
23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2011)	24	25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 개소(2012)	26	27	28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 탄신일(1896)	29
30						

5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 추모의 날

여성신문이 2019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20대 여성 가운데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여기는 1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인 716명이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02명 42.17%가 강남역 사건 전후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25% 안팎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여성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인지했음을 보여주었다.

5

May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노동절	2	3	4 윤 2.15 언론자유の日(1993)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싱글맘의 날(2011)	12	13
14	15	16 평원고무공장 여직공파업(1931)	17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日(1990), 강남역 '여성혐오살해' 사건 추모의 날(2016)	18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9	20 4.1
21 문화다양성의 날 (2002)	22	23	24	25	26	27 부처님오신날
28	29	30	31			

6월



여성정치학교

2000년 경남여성회에서 먼저 시작한 '여성정치학교'는 매년 여성정치학교, 여성유권자교실 등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 2004년 개소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정치발전소에서 프로그램을 이어 진행하면서 지역여성캠프, 여성정치학교,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화교육 그리고 2006년에는 지방선거 여성후보 발굴과 의정활동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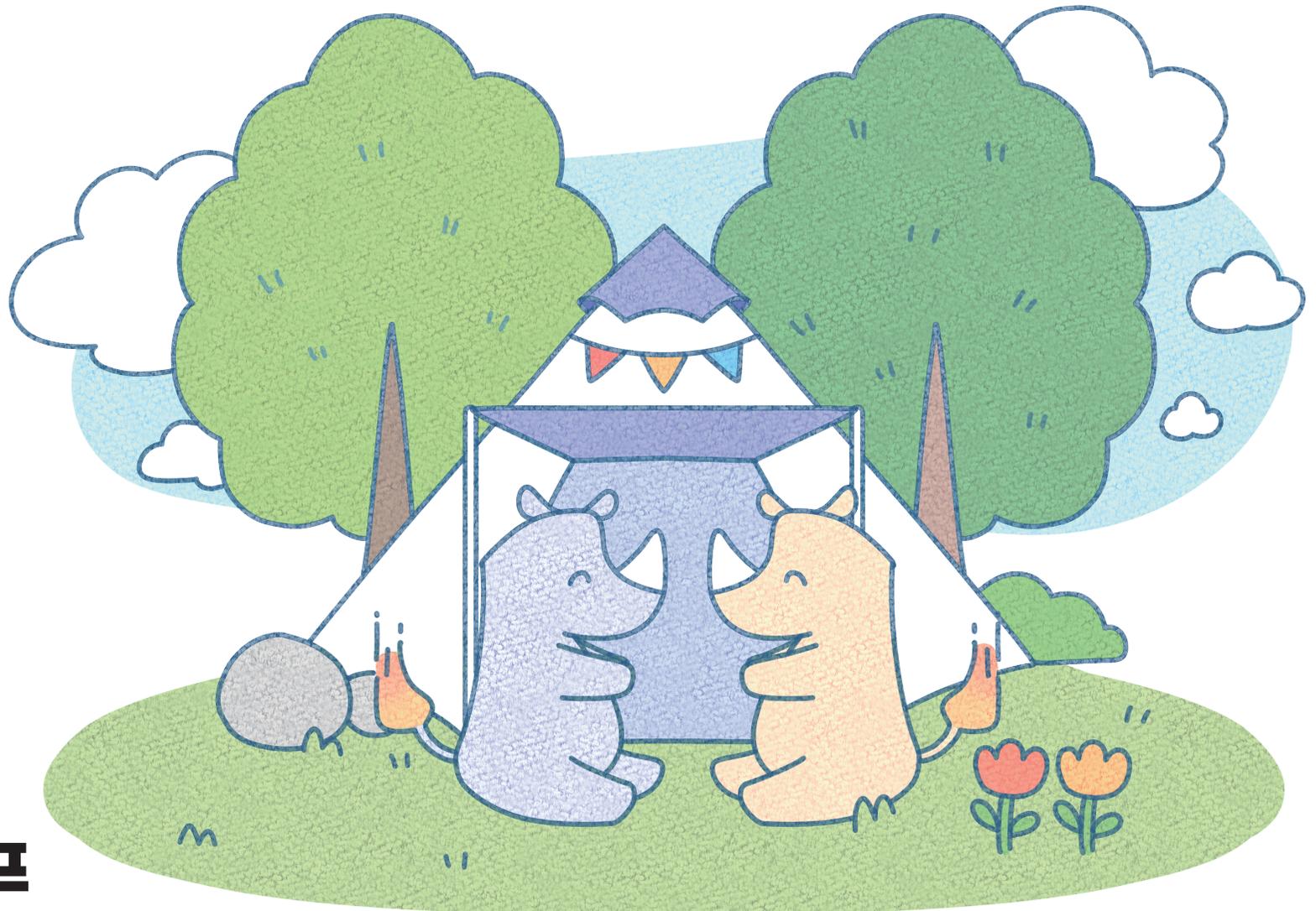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할당제 준수 요구, 여성후보 지지선언 등 경남지역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경남 광역의회 의원 후보 공천에서 거대양당의 선출직 여성후보 공천은 미비했으며, 경상남도 선출직 광역여성의원 당선인은 없었다.

6

June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15
4	5 세계 환경의 날(1972)	6 현충일	7	8	9	10 6.10 민주항쟁기념일
11	12	13	14	15	16	17
18 5.1	19 성폭력 친고죄 폐지시행일(2013) 진주여성민우회 창립(1997)	20	21	22	23	24
25 신OO교수 성희롱사건 원고 승소 판결(1999)	26 고문희생자의 날 (1997)	27	28	29	30	

7월



경남 페미_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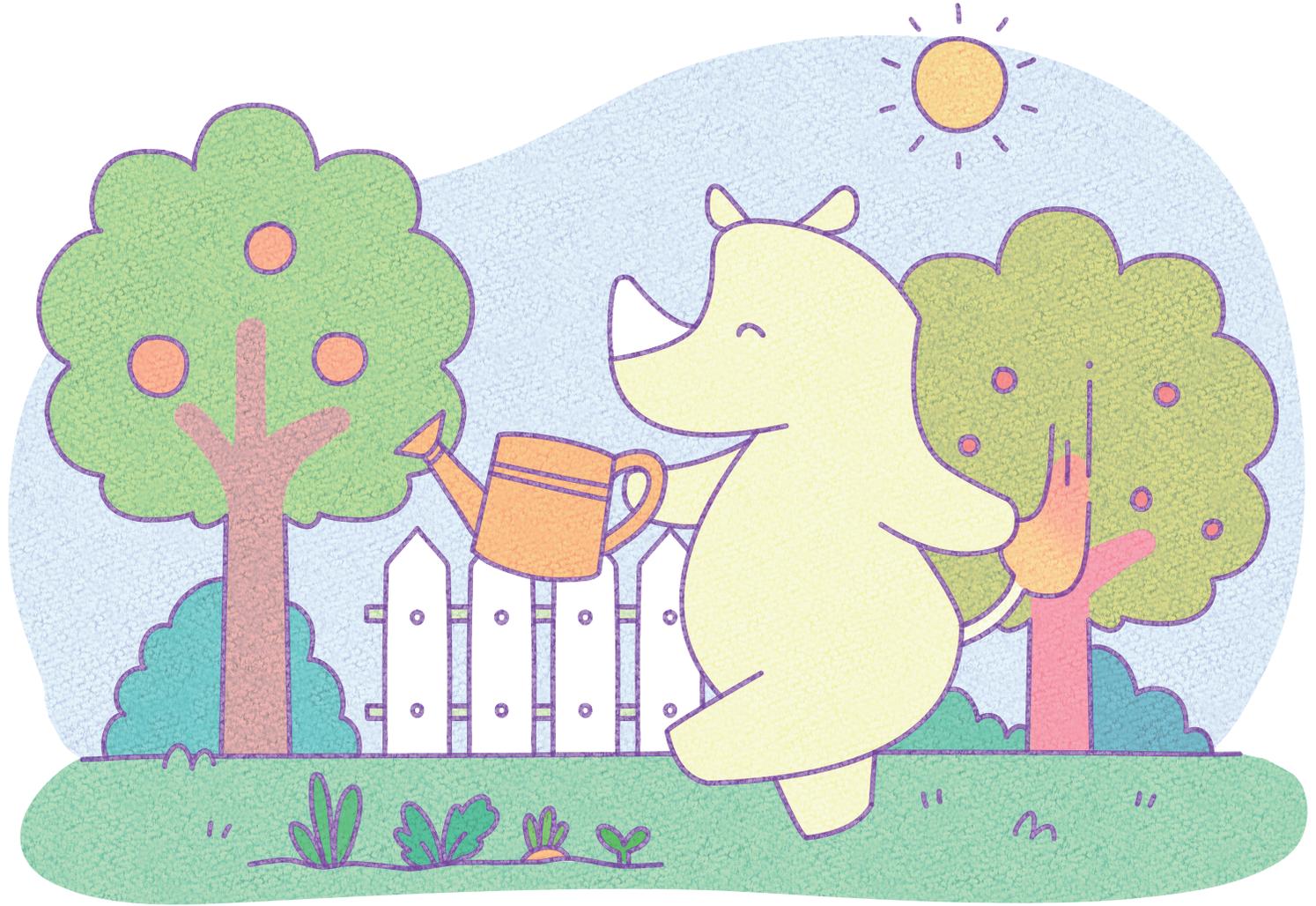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창립 이후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추진하면서 경남지역 여성운동 리더를 양성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활동가 캠프를 통해 활동가의 정책,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성인지관점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활동의 상상력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 영향으로 경남지역 여성시민과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의 요구가 늘어났다. 경남의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개선되어야 할 가부장적 지역문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남 페미_캠프'를 기획하게 되었다. 2018년~2021년까지 매년 '경남 페미_캠프'는 진행되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도 일상의 성차별, 성불평등의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위한 상상을 도모하는 안전한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경남도민과 만나고자 한다.

7

July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여성주간(1996)
2 5.15	3	4	5 거창여성회 창립 (2012)	6	7	8
9	10	11 초복	12	13	14	15
16	17 제헌절	18 6.1	19	20	21 중복	22
23	24	25	26	27	28	29 여성부 제주도 우OO지사성희롱 사실 공식 인정(2002)
30	31					

8월



경남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추진위원회

경남에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자 조직 내 의사 결정 참여수준은 너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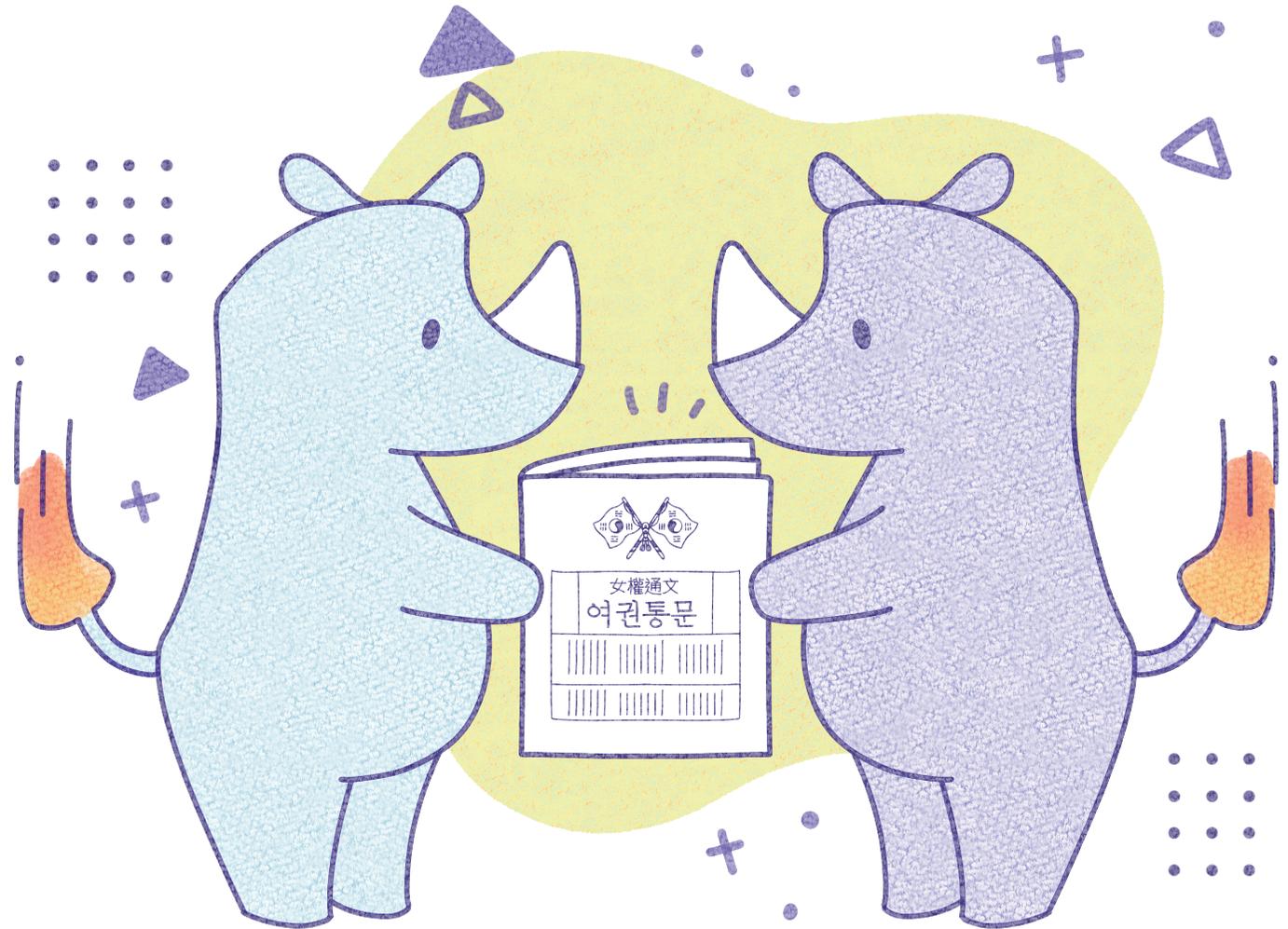
2007년 한여농경남도연합회와 전여농경남연합을 비롯한 경남지역 20여 개의 농민,사회단체들은 <경남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다 적극적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다.



August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6.15	2	3	4	5
6	7	8 입추 성폭력에 대한 최초의 정당방위 인정(1989)	9 YH무역농성사건 (1979)	10 말복	11	12
13 왼손잡이의 날 (1976)	14 故 김학순 일본군 성노예제도 피해 첫 증언(1991)	15 광복절	16 7.1	17	18	19
20 아내강제추행죄 인정 첫 판결(200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15	31		

9월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 이름으로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했다. 여권통문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실천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에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9월 첫주는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여권통문의 날’ 및 성평등주간을 맞아 문화행사 및 성평등 정책,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9

September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여권통문의 날(2019)	2
3	4	5	6 여성노인의 인권과 재산권 문제를 던진 이OO 이혼소송 대법원 승소(2000)	7	8	9 안희정 성폭력 대법원 유죄 선고 (2019)
10	11	12	13	14	15 8.1	16
17 여성평화의집 개관식(1993)	18	19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추모일 (2000)	20	21 세계 평화의 날 (1981)	22	23
24	25	26	27	28	29 추석 8.15	30

10월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로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되었다. 남성이 우선 호주가 될 수 있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호주제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운동의 결실로, 호주제는 2005년 2월 3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제도 대신 개인을 기준으로 출생, 결혼 등을 기록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남은 2003년 '호주제폐지경남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이후 2003년 '호주제폐지를위한 남성선언', 토론회, 기자회견 등 경남지역 여성인권운동을 진행하였다. 2005년 '호주제폐지 축하 한마당'을 진행하였다.

10

October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비폭력의 날(2007)	3 개천절	4	5 한국 최초의 '아내구타' 실태조사 발표(1983)	6	7
8	9 한글날	10	11 커밍아웃의 날(1988)	12	13	14
15 9.1	16 부마항쟁 기념일 (1979)	17 빈곤차별철폐의 날 (1992)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 윤OO씨 살인사건(1992)
29 9.15	30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설립(1999)	31				

11월



경남 여성정치세력화 연대활동

1995년 경남여성회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19개 보수·진보를 망라한 여성단체들이 모여 '여성후보 발굴을 위한 범 여성단체연대 모임'을 창립하여 여성후보의 발굴과 각 정당에 여성후보 공천을 요구하였다.

여성후보 범여성연대 후보로 두 사람을 발굴하여 도의원,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선전하였으나 낙선했고 여성후보 출마자체가 여성정치세력화의 운동이었다. 1998년 제3대 지방선거에도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경남여성연대모임'을 통해 4명의 여성후보를 발굴하였고 1명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02년 창립 이후 여성정치세력화운동으로 여성할당제 준수를 촉구하는 입장문 전달, 여성후보지지선언, 선거 후보 대상 성평등 정책 의제 질의서 전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

November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4
5	6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립(2009)	7	8 입동	9	10	11
12	13 10.1 전태일 열사 추모일 (1970)	14	15	16	17	18
19	20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1998)	21	22	23	24	25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1991)
26	27 10.15	28	29	30		

12월



경남 성주류화를 위한 연대활동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문'을 성주류화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채택하게 된다. 이후 세계 각국의 거의 1/3이 젠더계획을 채택하고 ¼의 국가가 예산 배정에서 젠더 문제를 고려하였고, 더불어 성주류화를 위한 국가기구가 대폭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성주류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부서의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여성관련 정책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지방정부도 성주류화 정책 공약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만들 의무가 생겨났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02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경남 성평등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제안 토론회 등의 활동을 연대하였다. 2011년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이후 경남 성주류화를 위한 활동으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모니터링, 정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글로벌 젠더 이슈의 공론화를 이어가고 있다.

12

December
202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창립(2020)	2
3 세계장애인의 날(1981)	4 일본군 성노예 전범국제법정, 일본에 유죄 선고(2001)	5	6	7	8	9
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948)	11	12	13 1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11.15	28	29	30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제정(1997)						

2023



경남여성단체연합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UNITED